

청소년 관람 대중영화에 나타난 성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ender Stereotypes in Korean Popular Movies available for Adolescents

저자 (Authors)	김선아 Kim Seonah
출처 (Source)	영화연구 (80), 2019.6, 35-64(30 pages) Film Studies (80), 2019.6, 35-64(3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영화학회 Korean Cinema Association(KC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41776
APA Style	김선아 (2019). 청소년 관람 대중영화에 나타난 성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80), 35-64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11.48.46.*** 2020/04/29 15:3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청소년 관람 대중영화에 나타난 성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김선아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부교수

목차

1. 들어가며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 1) 선행연구
 - 2) 연구방법
3. 본론
 - 1) 대중영화에서의 성 불균형
 - 2) 1 주인공의 성별에 따른 청소년 관람 가능 영화의 장르별 유형
 - 3) 여성 1 주인공의 유형: 로맨스와 가부장제 그리고 그 경계를 넘는 여성 노동자와 연대
 - 4) 청소년 관람 대중영화에서의 여성 주인공과 성 고정관념
4. 나오며

국문요약

시각적 특수효과와 대중성을 앞세운 할리우드 영화의 공세가 매서운 상황에서 한국 영화산업이 처한 현실은 만만치 않다. 미국 프랜차이즈 시리즈 영화와 경쟁

해야 하는 한국영화는 범죄와 같은 자극적인 소재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고 12세이상 관람가 등급에서는 프랜차이즈 영화를 앞세운 외국영화가 점유율 68%가 넘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영화는 범죄, 역사적 사실 또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장르영화를 통해 남성 중심의 서사를 계승하며 성장해왔다. 그러나 여성주의의 새로운 등장과 이를 제작환경과 서사에 모두 반영하기를 원하는 관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한국영화는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응답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본 연구는 상영등급을 기준으로 청소년 관람이 가능한 최근 5년의 영화를 대상으로 여성 캐릭터의 재현 유형을 알아본다. 여성 주인공 영화의 장르별/등급별 작품수를 알아보고 성 고정관념에 관한 해외와 국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현 유형을 짚어본다. 이를 통해 한국의 청소년들이 성장 과정에서 영화를 통해 만나게 되는 여성의 모습이 어떤 한계에 봉착해 있는지 가늠해보고 여성 캐릭터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 논의가 전개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

여성주의, 한국 대중영화, 상영등급, 여성 캐릭터, 여성 주인공, 성 고정관념

1. 들어가며

지난 2018년에는 한국 영화산업에서 성평등을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이 활발하게 제기되었다. 법조계에서 시작한 미투(#Me Too)운동은 영화계로 퍼져 화려한 천만 영화의 성공 신화 뒤에 숨어 있던 성폭력의 어두운 민낯을 드러냈다.¹⁾ 이에 여성영화인모임을 주축으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지원을 받아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이하 든든)이 2018년 3월 문을 열고 「영화인의 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한 성폭력(성차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영화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개진해나가고 있다.²⁾ 영화진흥위원회는 2017년 처음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통계를 발표했으며 소수자 영화정책과 관련하여 성평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고³⁾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영화산업 내부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성평등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사실 이것은 이미 영화산업에서의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찌감치 활동을 시작한 외국의 경우에 비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스웨덴의 Swedish film institute(이하 ‘SFI’), 영국영화협회(British film institute), 영국감독조합, 스크린 오스트레일리아(Screen Australia) 등은 일찌감치 여성 영화인과 여성 서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관점과 밀도를 가진 성인지 통계 및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산업 내부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지나치게 남성 중심으로 기울어진 영화 서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 작가, 프로듀서, 연기자 등의 여성 키플레이어(Key player)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잘 알려진 것 같이 스웨덴 SFI가 주관한 프로그램 ‘FiftyFifty’는 2020년까지 영화산업에서의

주

- 1) <“미투운동→故신성일까지”..2018년영화계 사건사고 TOP5>, 《OSEN》, 2018-12-21
- 2)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http://solido.kr/about/history/>
- 3) 영화진흥위원회, 「소수자 영화정책 연구 | 성평등 영화정책을 중심으로」, 2018년 2월.

여성 인력을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4 가지 전략을 시행하였으며 그중 하나는 벡델 테스트(Bechdel Test)⁴⁾를 스웨덴의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영화기금(Vienna film fund)은 특히 텔레비전 분야에서 공적 지원 자금에 대한 성불균형 해소를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 분배 뿐만 아니라 지원받은 프로젝트에 투입된 양적 불균형까지 분석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평등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⁵⁾ 그러나 한국 영화 산업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은 기초적인 통계와 문제 제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것이 이제 막 시작한 ‘든든’과 영진위 ‘성평등 소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성과를 기대하고 주목하는 이유이다. 한국 영화산업에서 실현 가능하며 효율적인 성평등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산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통계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영진위는 2017년 결산보고서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상업영화 중 핵심창작인력의 참여 작품수, 상업영화 여성감독 작품수 및 관객 수, 여성 주연 작품 관객수 및 매출액 등의 기본 통계를 발표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련 데이터와 통계를 구축하고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며 영진위의 결산보고서 역시 성인지 통계는 앞으로 더 긴 기간에 걸쳐, 더 전면적으로, 더 다양하게 조사 분석되어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⁶⁾ 영화산업 성불평등에 관련한 많은 나라와 다양한 기관의 연구 가운데 가장 많이 거론되고 영감을 주는 것 중의 하나로 스테이시 스미스 (Stacy L. Smith)의 연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스테이시 스미스가 속한 서던캘리포니아 대학(USC) 아넨버그 커뮤니케이션스쿨(USC Annenberg school for communication)⁷⁾은 매년 미국영화 중 100개의 최고 흥행 영화를 스크린

주

4) 벡델 테스트(Bechdel Test)는 영화산업에서의 성차별, 특히나 여성이 적게 나타나는 현상을 지적하기 위해서 고안된 테스트로서,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최소 조건은 ①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를 최소 2명이상 포함할 것, ②서로 이야기를 나눌 것, ③남성에 대한 것 이외에 다른 대화를 나눌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2%A1%EB%8D%B8_%ED%85%8C%EC%8A%A4%ED%8A%B8

5) 류정아 외, 「성평등 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7, 91쪽.

6) 영화진흥위원회, <2017년 한국영화산업 결산보고서>, 영화진흥위원회, 2018년 1월, 77쪽.

(on-screen)과 카메라 뒤(Behind the camera)로 나눠 성별과 인종/민족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다양한 폭과 깊이를 가진 아넌버그 커뮤니케이션스쿨과 지나 데이비스 연구소⁸⁾를 중심으로 한 연구 가운데 아동과 청소년 대상 영상물에서의 성 고정관념(Gender Stereotype)에 관한 보고서는 여성이 사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에서는 남성보다 훨씬 덜 등장하고 나오더라도 “지나치게 매력적(hyper-attractive)”, 지나친 성적매력(hyper sexual) “또는 수동적 이어서 존재감이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⁹⁾

최근 한국에서도 스크린 앞과 카메라 뒤의 성불평등이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과 공감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전개되는 시점에 서 있다. 한국영화에서 여성 서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남성 캐릭터와 비교해 비중이 작거나 표현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는 등 성 고정관념에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¹⁰⁾ 여성 주인공 영화들이 대개 중·저 예산 영화라는 점도 대중영화의 측면에서 여성에게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¹¹⁾ 한국 영화산업은 미국의 프랜차이즈 영화(movie franchise) 영화와 경쟁

주

- 7) USC Annenberg 홈페이지 <https://annenberg.usc.edu/research/aii>,
- 8) The Geena Davis Institute on Gender in Media, 영화배우 지나 데이비스가 설립한 연구소
- 9) Dr.Stacy L Smith, Crystal Allene Cook, <Gender Stereotypes:An Analysis of popular films and TV>, Annenberg School for communication/The geena Davis Institute on Gender in Media, 2008. 12pp. https://seejane.org/wp-content/uploads/GDIGM_Gender_Stereotypes.pdf
- 10) 권은선 중부대 연극영화학과 교수는 “현장에서의 성차별적 관행과 구조”가 최근 몇년간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영화 속 여성 캐릭터의 부재,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혐오 제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 보고를 언급하며 여성주의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 젠더 감수성을 가진 전문 행정인의 양성 등을 제안했다. <성평등문화정책포럼, ‘여성, 문화·예술 정책’을 말하다>, 《씨네21》, 2018년 11월 9일.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1614
- 11) 청룡 후보작이 말하는 여성영화의 현실, 제작 규모도 표본도 적은 여주연 영화, 환경 아쉬운 이유. 여우주연상 후보작 중 가장 큰 제작비가 투입된 작품은 박보영의 ‘나의 결혼식’(이하 총제작비, 약 50억 원)이었다. 김태리의 ‘리틀 포레스트’가 약 35억 원, 김희애의 ‘허스토리’가 약 25억 원으로 제작됐다. 이솜을 후보에 올린 독립영화 ‘소공녀’에는 3억5천만 원 가량, 수상자 한지민의 영화 ‘미쓰백’은 16억 원 가량이 투입됐다. 이들 영화의 제작비를 합산하면 채 150억 원이 되지 않는다.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배우들의 출연작 중 가장 큰 제작비가 투입된 ‘공작’(제작비 약 190억 원)이나 ‘신과 함께·죄와 벌’(제작비 약 180억 원) 중 한 편도 완성할 수 없는 수준이다. <청룡 후보작이 말하는 여성영화의 현실>, 《조이뉴스24》, 2018년 11월 24일. <http://www.joynews24.com/view/1141499>,

하는 가운데 보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 묘사가 포함된 청소년 관람 불가의 범죄영화에 치중하는 경향이 높아졌으며, 선정성 수위가 낮은 12세 이상 관람가에서는 할리우드 프랜차이즈 영화를 앞세운 외국영화가 68.4%의 점유율¹²⁾을 차지하며 심한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영화의 과도한 남성 중심 서사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 고정관념을 갖게 할 위험이 있으며 여성 서사를 비상업적이고 낮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더 나아가 청소년들이 할리우드 프랜차이즈 영화의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현실은 향후 한국 영화산업의 경쟁력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산업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연구와 데이터 구축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한국 영화산업의 다양한 성불평등 문제 가운데 청소년이 관람 가능한 대중영화를 중심으로 여성 주인공 영화를 상영등급과 장르의 측면에서 조사한다. 그리고 영화 속 여성 주인공을 대상으로 한 스테이시 스미스와 크리스탈 엘레인 쿡(Crystal Allene Cook)의 「청소년 대상 영상물에서의 성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및 한국영화의 여성 캐릭터 재현의 문제점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 영화에 나타난 여성 주인공의 재현 유형 및 그 문제점을 살펴본다.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1) 선행연구

(1) 영화 속 여성 캐릭터 재현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의 청소년 대상 영화에서 성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를 위해 한국 대중영화에서 여성 캐릭터가 재현되고 소비되는 방식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먼저 배은경은 「연쇄살인사건과 영화: 여성의 불안을 즐기는 사회」(2010)¹³⁾에서 <살인의 추억>과 <추격자>를 분석하고

주

12) 위 보고서, 영화진흥위원회, <2017년 한국영화산업 결산보고서>, 30쪽.

‘여성대상 연쇄살인사건의 영화화와 대중적 전유의 이면’에 여성의 불안을 즐기는 남성적 쾌락의 구조가 있음을 밝혀낸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국가나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특히 여성들은 ‘두려움과 함께 무력감’¹⁴⁾을 느낀다는 것이다. 조진희의 「조선족 여성에 대한 한국 상업영화의 민속지적 상상」(2017)¹⁵⁾은 <댄서의 순정>, <웨딩 스캔들>, <미씽: 사라진 여자>, <악녀>의 네 작품에서 조선족 여성들을 ‘물리적 힘에 저항하거나 사회적 압력에 대항할 능력이 없는 약자’로 묘사하며 결국 남성에 의해 구출되는 서사 또는 복수의 서사를 통해 범법자로 재현한다고 주장한다. 박인영은 「청소년의 성적 재현에 관한 연구」(2013)¹⁶⁾에서 2000년대 이후 남성 중심 서사가 주로 제작되는 한국영화산업에서 남성 청소년은 학교 폭력물(성장물)과 조폭 드라마 등 남성 멜로, 액션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에서 존재성을 드러내나 여성 청소년은 몇몇 공포 장르와의 연관성을 빼면 재현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열등한 위치에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최근 청소년의 재현은 섹슈얼리티와의 결합 ‘으로 나타나며 이 주장의 근거로 <눈물>(임상수, 2000), <사마리아>(김기덕, 2003), <제니, 주노>(김호준, 2005), <은교>(정지우, 2012)와 <과속스캔들>(강형철, 2008)을 들고 있는데, 특히 <과속스캔들>은 미혼모 여고생을 등장시키고 그것을 장르적 관성에 의해 현실성을 휘발시켰으며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섹슈얼리티 ‘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¹⁷⁾ 박인영은 다른 연구 「2000년 한국 스릴러 영화의 모성 재현 연구」(2013)¹⁸⁾을 통해서 모성 신화에 기댄

주

- 13) 배은경, 「연쇄살인사건과 영화: 여성의 불안을 즐기는 사회」,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제 88집』, 2010, 115쪽.
- 14) 위 논문, 배은경, 142쪽.
- 15) 조진희, 「조선족 여성에 대한 한국 상업영화의 민속지적 상상」, 현대영화연구 vol13.no.3, 2017
- 16) 박인영, 「청소년의 성적 재현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56), 2013, 155-204쪽.
- 17) 위 논문, 박인영. 이에 따르면 청소년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 및 비디오물 등급 분류에 의거 관람의 제한을 받으며 자신들의 재현에 대하여 분석하고 토론할 접근권 역시 제한된다. 거기에 청소년은 한국영화에서 청소년에 비해 재현의 주변부에 머물게 되는 중첩된 타자성을 드러낸다. <눈물>(임상수, 2000), <사마리아>(김기덕, 2003), <제니, 주노>(김호준, 2005)와 <은교>(정지우, 2012)를 예로들어 이를 설명함. 이에 따르면 <과속스캔들>(강형철, 2008)은 청소년과 섹슈얼리티의 결합에 대한 한국의 심리적 장벽이 무력화 되었음을 나타낸다. 156쪽

한국의 이른바'모성 스릴러'에서 광기와 결합한 형태로 드러나는 모성의 재현이 결국'모성 이데올로기' 혹은 모성 신화의 강화에 기여 '하며 이는'명백한 재현상의 젠더적 불균형과 모성 재현의 과잉 '을 통해 드러난다고 밝힌다.

앞서 소개한 스테이시 스미스와 크리스털 엘레인 쿡의 보고서(2008)¹⁹⁾는 미국의 영화배우 지나 데이비스(Geena davis)가 설립한 지나 데이비스연구소²⁰⁾와 아젠버그 스쿨이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보고서이다. 지나 데이비스는 인터뷰에서'지금 9살인 딸이 2살 때 어린이 쇼와 G등급(전체 관람가)의 비디오를 함께 보다가 그 속에서 그려지는 여성 캐릭터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영화 속에서 여성 등장인물은 현저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²¹⁾ 이후 설립한 지나 데이비스 연구소는 꾸준히 미디어에 나타난 여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지나 데이비스가 말한 미디어에서의 여성 캐릭터의 불균형에 관한 인상은 우리에게도 경험적으로 낯설지 않다. 스테이시 스미스와 쿡 박사의 연구(2008)²²⁾는 첫 번째로 1990년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의 최고수익 영화 101편의 G등급²³⁾ 영화의 영화 속의 남성과 여성 캐릭터들의 양과 묘

주

- 18) 박인영, 「2000년 한국 스릴러 영화의 모성 재현 연구」, 『영화연구』 제55호, 2013, 208쪽.
- 19) 앞 보고서, Dr.Stacy L Smith, Crystal Allene Cook, <Gender Stereotypes:An Analysis of popular films and TV>, 2008년, 12pp
- 20) Geena Davis Institute on Gender in Media. <https://seejane.org/>
- 21) <지나 데이비스 여성 미디어 지킴이로 나서다>, 《여성신문》, 2011년 8월 26일.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48>
- 22) 앞 보고서, Dr.Stacy L Smith, Crystal Allene Cook, <Gender Stereotypes:An Analysis of popular films and TV>, 2008년, 12pp
- 23) 미국의 영화관 개봉영화의 상영등급은 모든 연령층의 관람이 가능한 G에서 17세 미만은 관람이 불가한 NC-17까지 총 5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G - General Audiences (All Ages Admitted) - 모든 관객 (모든 연령층 적합) / PG - Parental Guidance Suggested (Some Material May Not Be Suitable For Children) - 부모 동반 (부분적 아동 관람 부적합) / PG-13 - Parents Strongly Cautioned (Some Material May Be Inappropriate For Children Under 13) - 부모 주의 (부분적 13세 미만 부적합) / R - Restricted (Under 17 Requires Accompanying Parent Or Adult Guardian) - 제한 (17세 미만은 부모나 성인 보호자 동반 요망) / NC-17 - No One 17 And Under Admitted - (17세 미만 관람 불가) 네이버 지식백과, 미국의 영화등급 (시사상식 사전, 박문각), 2019년 1월29일.

사의 특성을 분석했다. 그리고 말하는 캐릭터의 3분의 1 미만 (28%) (실사 및 애니메이션 모두) 이 여성이고 영화 나레이터(narrator) 의 5분의 4 이상(83%)이 남성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미국의 상영등급별 기준에 따라 1990년부터 2006년까지의 G-, PG-, PG-13, R등급 영화 400편을 카테고리 (kategorie) 별로 분석하여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여성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하나는 전통적인 캐릭터로 여성은 남성보다 부모로 묘사되거나 헌신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묘사될 확률이 높았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G, PG, PG-13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부모로 나타날 확률이 높았고 반면 R등급에서는 부모 상태 또는 헌신적인 관계 상태의 성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전통적인 여성 외의 다른 유형은 바로 극도로 성적인 매력을 강조하는 여성 캐릭터가 주로 나타났는데 등급별로는 R등급 여성은 G등급 여성보다 마르게 묘사되었고 G등급의 여성은 R등급보다 신체의 왜곡이 더 크게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1337년에서 2006년 사이에 최고 매출 영화 또는 재개봉이 많이 된 영화 가운데 13편의 영화에 대한 질적 평가를 병행하여 첫째, 표본의 거의 모든 영화에서 여성 주인공들이 외모에 대한 가치평가(Valued for their Appearance) ‘를 받고 있으며 실사와 애니메이션 영화의 4분의 3에서 여성 캐릭터가 성적으로 드러내는 복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둘째, ‘여성의 포부는 근시안적(Often Females’ Aspirations are short Sighted) ‘이며 전반적으로 사랑은 여성들의 열망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그려진다. 셋째, 표본 대부분에서 여성은 ‘1차원적인 사랑을 갈망하는(A Longing for One-Dimensional Love) ‘ 존재로 나타나며 로맨스가 플롯의 주요 포커스(focus) 이거나 다른 목표를 달성해도 로맨스 관계가 함께 나타난다. 넷째, 긍정적인 결과로는 ‘비탄에 빠진 소녀(Not Damsels in Distress) ‘²⁴⁾의 수는 상대적으로

주

- 24) 비탄에 빠진 처녀(Damsel in distress)는 영화·소설 등에서 사용되는 캐릭터 유형·모티프다. 복수형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약칭은 DID. 의미는 「위기에 빠진 여성」, 이른바 「불잡힌 아가씨」. 이러한 여성은 젊고 매력적이며, 악한·괴물·이성인 등에게 가로채져서 위기에 빠지는 것이 많다. 말개는 그 때에 줄이나 구속도구로 속박되어 혹은 우리에게 놓여져 또는 감시 침투의 연금 상태로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구출되었을 경우에 주인공과 사랑에 빠지는 것도 적지 않다. 서부극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던 이러한 히로인상은, 그 후의 활

적게 나타났으며 제작자들에게 이런 설정의 여성 주인공은 예전만큼 인기 캐릭터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수천 편의 영화를 수집하고 분석한 대규모 연구이며 본 연구와 양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미국의 영화산업이 주력하는 장르의 특성과 캐릭터는 한국과는 크게 다르다. 그러나 영화 속 여성의 재현과 관련하여 국가, 시대, 산업의 규모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고정관념의 문제는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로 뚜렷하게 존재한다.

영화 연구 80

(2) 청소년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에 관한 연구

연령에 따라 청소년과 성인을 나누고 영상물 관람을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의 '스크린에 재현되는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 자기 담론의 관점에서 비평과 토론의 기회를 차단'한다는 박인영의 관점은 영상물 관람에서 청소년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영상물 관람의 자유와 더불어 중요한 지점은 청소년 재현의 성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²⁵⁾ 연령대에 따른 영상물 관람등급 분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은 주로 반두라(Bandura)의 사회학습이론²⁶⁾에 근거하여 수용자 개인과 환경이 상호관계를 전제로 유해 영상물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유해 영상물을 차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²⁷⁾ 텔레비전의 성 묘사와 청소년의 성 관련 인식에 대한 워드

주

극에도 여러가지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9%84%ED%83%84%EC%97%90_%EB%B9%A0%EC%A7%84_%EC%86%8C%EB%85%80 (검색:2019년2월11일)

25) 앞 논문, 박인영, 「청소년의 성적 재현에 관한 연구」

26) Bandura, A., 김의철 외 역, 『자기 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 기와 발달 분석』, 교육과학사, 2003. 423-424쪽.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 중의 하나는 미국의 심리학자 반두라(Albert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이다. 반두라는 내면 요인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행위는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의 사회학습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 미디어에 노출된 경험, 즉 ‘학습’이라는 경험이 인간의 사회활동 속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사회학습이론은 특히 텔레비전 폭력물과 아동의 행동을 다룬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27) 현승훈, 「영상물 관람등급 분류에 따른 수용자 인식유형에 관한 연구」, 『씨네포럼』, (22), 2015년, 423-424쪽.

(Ward, 2002)²⁸⁾의 연구에 따르면 황금시간대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도가 높을수록 남녀 성차별에 관한 수용 정도가 높아졌다. 이는 텔레비전의 남녀 차별적인 성 고정관념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에 나타난 성차별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보고서²⁹⁾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전문가 좌담회를 통해 ‘우리 사회 양성평등의 수준을 현실 사회에서 그리고 미디어 속에서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요청했을 때, 현실과 미디어 속의 성평등 수준이 같다고 평가한 전문가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³⁰⁾ 이것은 미디어는 현실을 담아내는 도구이며 미디어에 재현된 모습과 실제 현실은 어떤 의미에서 서로 닮아있으며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³¹⁾까지 한국영화 흥행순위 50위까지의 작품을 대상으로 남녀 1 주인공과 2 주인공을 정리하고 그 가운데 여성 주인공의 작품 수, 장르, 관람등급 등을 알아본다. 1 주인공과 2 주인공의 구분은 영화의 포스터 크레딧(credit)을 기준으로 하며 불확실한 경우에는 네이버(NAVER) 영화정보의 순서를 기준으로 하였다. 스테이시 스미스와 쿡의 연구(2008)의 여성 캐릭터의 성 고정관념의 4가지 유형이 1937년부터 2006년 1월까지의 G등급 영화 가운데 최고수익 영화

주

28) Ward, L. M.(2002). 「Does television exposure affect emerging adults’ attitudes and assumptions about sexual relationships? Correlational and experimental confirm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1), 2002, 1~15pp.

29) 심미선 외,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 2017년 11월 17일, 5쪽.

30) 앞 보고서,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 204쪽. 스마트미디어의 등장 이후 사람들은 미디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미디어는 사람들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식의 준거 기준을 미디어에서 찾는다. 204쪽.

31) 본 연구의 자료조사 기간인 2018년 2월 초까지 영화진흥위원회의 2018년 결산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은 관계로 조사대상 범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8년부터의 흐름과 변화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01편을 대상으로 캐릭터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했던 것이라면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한국영화 흥행순위 상위 50편, 총 250편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관람 가능한 영화에서 여성 주인공이 재현되는 유형과 방식에 집중한다. 청소년 관람 가능 영화의 기준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구분에 따라 전체관람가, 12세이상 관람가, 15세이상 관람가의 영화를 청소년 관람 가능 영화로 구분하였다. 재현 유형의 경우 미국 영화 산업과는 다른 한국 영화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비평적 관점에서 영화 속 여성 캐릭터 재현의 문제를 연구한 선행 연구의 시각을 반영하고 스미스와 쿡 박사의 2008년 연구의 성 고정관념에 관한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3. 본론

1) 대중영화에서의 성 불균형

영화진흥위원회의 흥행집계를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흥행순위 50위까지의 영화를 대상으로 관람등급에 따라 분류하고 애니메이션과 다큐는 제외하고 실사영화를 중심으로 1 주인공과 2 주인공의 성비를 조사하였다.

〈표 1〉 2013년~2017년 매년 흥행순위 50위까지의 등급분류 및 주인공의 성비

연도	관람등급	편수	1주인공(여)	1주인공(남)	2주인공(여)	2주인공(남)	비고
2013	전체관람가	3	1	1	0	2	애니 1편
	12세 관람가	3	1	2	2	1	
	15세 관람가	34	6	28	11	23	
	청소년관람불가	10	1	9	1	9	
		50	9	40	14	35	
2014	전체관람가	3					애니2, 다큐 1
	12세 관람가	11	3	8	9	2	
	15세 관람가	22	2	20	7	14	
	청소년 관람불가	14	2	12	8	6	
		50	7	40	24	22	

2015	전체관람가	4	1		1		애니2,다큐 1
	12세 관람가	11	1	10	4	7	
	15세 관람가	25	5	20	8	17	
	청소년 관람불가	10	3	7	2	8	
		50	10	37	15	32	
2016	전체관람가	3		1		1	애니 2편
	12세 관람가	18	3	15	7	11	
	15세 관람가	22	7	14	6	15	다큐 1편
	청소년 관람불가	7	5	2	1	6	
		50	15	32	14	33	
2017	전체관람가	3					애니 3편
	12세 관람가	10	1	8	4	5	다큐 1편
	15세 관람가	30	1	28	5	24	다큐 1편
	청소년 관람불가	7	2	5	0	7	
	합계	50	4	41	9	36	

조사대상 영화 가운데 전체관람가는 총 16편으로 6%, 12세이상 관람가는 53편으로 21%, 청소년 관람불가는 총 48편으로 19%였으며 15세이상 관람가 영화가 총 133편, 53%로 가장 많았다. 2017년의 영화진흥위원회 결산보고서의 상영등급별 전체 관객 수에서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전체관람가 관객의 90.3%가 외국영화 관객으로 전체관람가 등급의 애니메이션이 가족영화로 소비되는 반면 한국영화는 점유율이 9.7%로 매우 낮았다. 12세이상 관람가에서는 할리우드 프랜차이즈 영화의 영향으로 외국영화가 68.4%로 높았으며, 15세이상 관람가와 청소년 관람불가에서는 한국영화가 각각 73.8%와 60.8%로 외국영화보다 우위로 나타났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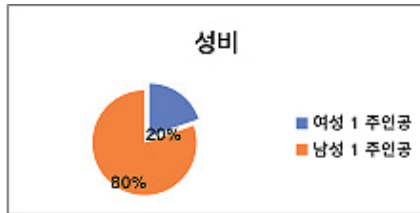
대상영화 250편 중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및 배급 시기가 다음 해로 이월되어 중복되는 작품³³⁾을 제외하면 조사대상 작품수는 총 228편이며 이중 여성 캐릭터가 1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는 45편으로 20%에 불과했고 남성 캐릭터는 183편에서 1 주인공으로 나오며 80%로 압도적으

주

32) 앞 보고서, 영화진흥위원회, <2017년 한국영화산업 결산보고서>, 30쪽.
33) 배급시기가 겹쳐 중복되는 작품은 개봉년도 기준으로 하였다. (<용의자>, <변호인>, <국제시장>, <대호>, <희말라야>, <마스타>, <판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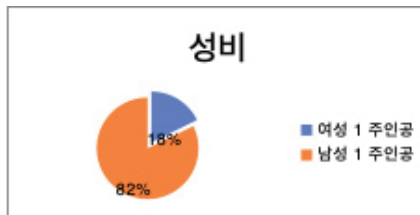
로 우위를 차지했다. 이는 대중영화에서 여성 주인공과 남성 주인공의 비율이 그만큼 불균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성 서사의 부재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표 2〉 연도별 흥행순위 50위까지 작품에서
1 주인공의 성비 분포(2013-2017)



그중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청소년이 관람 가능한 등급의 작품 수는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그리고 중복작품을 제외하고 총 180편이며 그중 여성이 1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 수는 32편으로 18%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등급의 영화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의 여성 1 주인공의 비율 20%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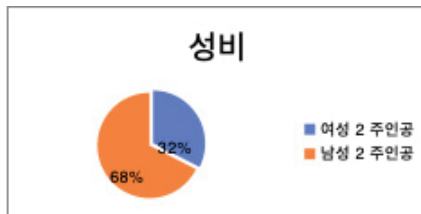
〈표 3〉 연도별 흥행순위 50위까지 청소년
관람가능 작품에서 1 주인공의 성비(2013-2017)



2 주인공의 성비를 조사하면 여성 2 주인공의 성비는 1 주인공과 비교해 다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인공의 경우에는 남성 1 주인공에 이어 여성이 2 주인공을 하거나 여성 1 주인공에 이어 다른 여성이 1

주인공을 하는 경우, 남성 1 주인공에 이어 다른 남성이 2 주인공을 하는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여성 2 주인공이 등장하는 작품 수는 75편, 남성 2 주인공이 등장하는 작품 수는 156편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2 주인공의 비율은 여성 1 주인공의 비율 20%보다 다소 높은 3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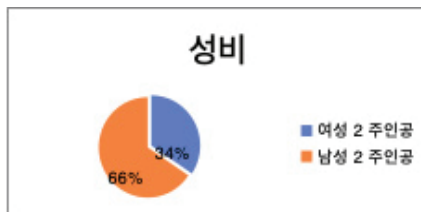
〈표 4〉 연도별 흥행순위 50위까지 작품에서 2 주인공의 성비 분포(2013-2017)



영화
연구
80

청소년이 관람가능한 영화로 범위를 좁히면 여성 2 주인공 63편, 남성 2 주인공 120편으로 여성 2 주인공의 비율은 34%, 남성 2 주인공의 비율은 66%로 나타났다. 청소년 관람가능한 영화에서 여성 1 주인공의 비율이 18%로 적게 나타난 상황에서 여성 2 주인공의 비율 역시 절반에 못 미치는 34%로 나타난 것은 청소년이 볼 수 있는 대중영화에서 여성 서사가 보조적인 역할이나 서브플롯(subplot)에서도 부족하게 다뤄지며 심각한 성불균형을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연도별 흥행순위 50위까지 청소년 관람가능 작품에서 2 주인공의 성비(2013-2017)



2) 1 주인공의 성별에 따른 청소년 관람 가능영화의 장르별 유형

앞서 밝혔듯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흥행영화 50위까지를 대상으로 청소년이 관람 가능한 등급분류에 따라 전체관람가, 12세이상 관람가, 15세이상 관람가로 좁히면 대상 작품수는 180편이며 이중 여성 1 주인공의 작품은 32편이며 남성 1주인공의 작품은 148편이다. 본 연구의 장르 구분은 영진위 데이터베이스에 표기된 장르 구분을 사용하였으며 영화별 장르 구분은 네이버의 영화정보를 기준으로 하였다. 개별 영화들은 대개 여러 개의 장르가 혼합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중 액션이 표기된 장르는 모두 액션으로 구분하였고, 단독으로 드라마로 표기되거나 다른 장르와 함께 표기되었더라도 영진위 데이터베이스의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장르는 드라마로 구분하였다. 액션을 혼합 장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오락성을 앞세운 대중영화에서 중요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제작비도 많이 필요한 장르이기 때문이다. 여성 주인공 영화가 대개 중·저 예산 영화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유의미하게 살펴볼 지점이다.

〈표 6〉 청소년 관람가능 등급에서 여성이 1 주인공 작품 장르구분(2013-2017/흥행50위)

장르구분	여성 1주인공 작품수	비율 (%)	남성 1주인공 작품수	비율 (%)
스릴러/미스터리/범죄	8	25	31	21
드라마	10	31	55	37
로맨스/멜로	10	31	9	6
코미디	2	6	17	11
액션	2	6	36	24
합계(비율*소수점 이하 절삭)	32		148	

청소년이 관람가능한 흥행순위 50위까지의 작품에서 여성 1 주인공 영화의 장르는 드라마와 로맨스/멜로가 각 31%로 가장 많았으며 스릴러/미스터리/범죄장르가 25%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코미디와 액션은 각 2편으로 가장 적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1 주인공 영화의 장르는 드라마가 37%로 가장 많았으나 여성 1 주인공 영화와는 달리

액션 장르가 24%로 2위로 나타났으며 코미디 장르는 여성 1 주인공 작품은 단 2편으로 6%였지만 남성 1 주인공 작품은 17편으로 11%로 나타났다. 주목할만한 점은 여성 1 주인공 작품은 로맨스/멜로 장르가 10편으로 드라마와 함께 31%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장르였으나 남성 1 주인공의 경우 6%로 가장 적게 만들어지는 장르였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 1 주인공이 등장하는 작품에서 남녀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이고, 남성 1 주인공의 경우에는 남녀의 사랑이 중심이야기인 경우가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밝혔듯이 1 주인공의 성비가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여성 주인공의 경우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멜로/로맨스 장르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을 사랑과 결혼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아직 한국영화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테이시 스미스와 쿡 박사의 연구(2008)는 미국 청소년 대상 대중영화에서 여성 주인공은 사랑을 갈망하며 로맨스가 플롯의 주요 포커스이거나 다른 목표가 설정되어도 로맨스 관계와 함께 나타난다고 밝혔다. 한국의 청소년 대상 대중영화 역시 여성 주인공은 로맨스/멜로 장르에서 다뤄지고 다른 장르, 플롯에서 주요 목표가 설정되어도 로맨스 관계 안에 놓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3) 여성 1 주인공의 유형: 로맨스와 가부장제 그리고 그 경계를 넘 는 여성 노동자와 연대

한국 영화산업에서 여성 캐릭터가 놓인 성 정치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은 수많은 영화와 캐릭터를 경유하고 다양한 관점을 종합하며 방대한 영토의 지도를 그려야 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론에서 밝힌 대로 대상 영화의 범위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여성 1 주인공 영화로 하고 그 안에 드러난 여성 캐릭터의 유형을 성 고정관념의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한국의 여성주의 영화 연구자들의 다양한 관점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능한 산업의 표면에 드러난 여

성 캐릭터의 유형을 찾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여성 주인공 영화를 대상으로 캐릭터의 표면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으로 영화 안의 다른 조연 여성 캐릭터 혹은 남성 캐릭터와 그 관계를 통해 전파되는 과편화되고 숨겨진 반동적 성 정치학의 흔적을 분리해내고 추출하는 여성주의 영화비평의 개별 영화 분석과 연구를 통해 세밀해지고 의미를 보완할 수 있다. 스테이시 스미스와 쿡의 연구(2008)는 방대한 데이터와 많은 인력을 활용하여 가공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영역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여성 주인공이 로맨스와 가부장제 관계 안에 놓여 있다는 연구 결과는 국가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본 연구에서의 장르와 여성 주인공 캐릭터의 유형별 연구에 방향성을 제시한다.

(1) 로맨스 관계에 놓여 있는 캐릭터

여성 1 주인공 영화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진 장르의 하나는 멜로/로맨스 장르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르의 특성상 로맨스가 바탕이 되는 로맨틱 코미디/멜로 장르외에 드라마나 스릴러 장르에서도 스테이시 스미스와 쿡 박사의 연구(2008)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성 주인공에게 ‘다른 목표가 설정되어도 로맨스 관계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³⁴⁾가 많았다. 드라마 장르인 <덕혜옹주>(2016)의 덕혜(손예진)는 비운의 역사적 인물로 시대의 아픔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김장한(박해일)과 로맨스의 감정을 함께 그려낸다. <시간이탈자>(2016)는 멜로 장르의 성격이 가미된 스릴러로 주인공들의 사랑이 핵심 플롯으로 등장하며 역시 드라마 장르인 <해어화>(2016)도 기생이 된 소울(한효주)과 윤우(유연석)의 로맨스가 중요한 장치가 된다.

주

- 34) 앞 보고서, Dr.Stacy L Smith, Crystal Allene Cook, <Gender Stereotypes:An Analysis of popular films and TV>, 2008년, 12pp

(2) 모성 또는 가족관계 속에서 갈등하는 캐릭터

여성이 1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중 많은 경우에 여성 주인공은 모성에 또는 가족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는 인물로 그려지며 영화의 핵심사건 역시 모성/또는 가족관계로 인해 일어나거나 갈등을 겪고 해결된다. <못타주>(2013)의 하경(엄정화)는 딸을 죽인 범인을 쫓는 엄마로 등장하며 <미쓰 와이프>(2015)의 연우(엄정화) 결말에서 역시 모성애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인물로 등장한다. <수상한 그녀>(2014)의 오두리/오말순(심은경/나문희)는 청춘으로 돌아가 가수의 꿈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고 손자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가부장적 세계관 속의 모성을 실천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미생: 사라진 여자>(2016)은 위킹맘 지선(엄지원)과 조선족 유모 한매(공효진)가 한국 사회에서 각각 위치한 계급 안에서 서로 다른 입장에 서게 되는 모습을 담는다. 지선이 위킹맘으로써 끊임없이 자신의 모성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모성의 신화와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며 겪는 현실 사이의 지각변동과 균열을 함께 드러낸다.³⁵⁾³⁶⁾ <장산범>(2017)은 아이를 잃고 실의에 빠진 모성애 강한 여인 희연(엄정아)이 주인공으로 나온다. 특히 스릴러(또는 미스터리 드라마) 장르의 영화에서 모성을 바탕으로 한 여성 주

주

- 35) “지선이 위킹맘이라는 설정은 여성에 대한 모성애의 강요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일이 바빠 아이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그가 지속적으로 모성애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 흥미롭다. 의사인 아빠에겐 누구도 부성애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선은 아이가 없어진 위급 상황에서도 그것이 친권을 차지하기 위한 이혼녀의 조작이 아님을 납득시켜야 한다.” <미생: 사라진 여자> 리뷰 | 절대 사라져선 안 되는 것>, 《맥스무비》, 2016년 11월 22일. <http://news.maxmovie.com/282364#csidx4f5f4067c37d9c9886aae119c23bdec>
- 36) 이연희 감독은 ‘여성’에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 중 하나가 ‘모성’이다. 이 감독은 ‘미생: 사라진 여자’ 속 두 여자 지선(엄지원 분)과 한매(공효진 분)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그게 제 고민이에요. 왜 모성으로 느껴질까. ‘미생’에 대해서 한 번도 모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 또래 사람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애가 있는 여자가 있고, 없는 여자가 있지만 애가 있는 여자가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된 구석들이 있거든요 (중략) 저는 지선에게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한매에게 아이는 어떻게 보면 폭력의 결과물이잖아요. 모성일 수도 있지만 휴머니즘인 거죠.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그냥 본인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성 자체에 대한.” <한국영화 속 여성, 이렇게 변했다③> 下 이연희 감독 “기회 주는 사람들, 도전정신 가졌으면”, 《시사위크》, 2018년 12월 31일. <http://www.sisaweek.com/news/curationView.html?idxno=117075>

인공의 복수 또는 추적 등을 그리고 있다는 점과 연결된다.³⁷⁾ 이는 2000년대 <살인의 추억>(2003), <세븐데이즈>(2007) 등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국 영화산업에서 스릴러가 중요한 장르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모성스릴러’라는 하위 장르가 등장한 현상과 맞물린다.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가 말했듯 모성을 이상화하고 신성시하는 것은 여성이 성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성적 불안과 성적 죄책감의 위력을 보존하려는 수단이다.³⁸⁾ 그런 의미에서 연구대상 영화에서 여성 1 주인공들이 모성의 신화에 갇혀 결국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이거나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존재로 그려지는 것은 아직 한국영화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가부장제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 주인공이 갖는 모성애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 외에 여성 주인공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사건과 플롯의 중요한 설정으로 하는 영화들도 이 유형에 포함된다. 스릴러 장르인 <공범>(2013)은 아빠를 의심하게 된 다은(손예진)의 감정적 갈등이 모티브(motive)이고, <암살>(2015)의 윤옥(전지현)은 흔히 않은 액션 블록버스터의 여성 1 주인공으로 ‘공적 대의를 위해 나쁜 아버지를 죽이며 자기 운명을 결정짓는 여성 영웅’³⁹⁾으로 그려진다. <공범>과 <암살> 모두 한국 영화산업의 대표적인 여배우들인 손예진과 전지현을 각각 주인공으로 내세워 스릴러와 액션이라는 오락성이 높은 장르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의 핵심적인 갈등 요인을 여주인공이 아버지에게 느끼는 양가적 감정을 중심으로 풀어낸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남성 1 주인공 액션 영화인 <부산행>(2016)의 석우(공유)가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표적>(2014)의 백여훈(류승룡)이 납치된 아내를 구하려고 애를 쓰며 가족을 지키는 존재로 나오는 반면 여성 1 주인공은 아버지와의 가부장적 관계 안에서 갈등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주

37) 앞의 논문, 박인영, 「2000년 한국 스릴러 영화의 모성 재현 연구」, 『영화연구』 제55호, 2013년, 205쪽.

38)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 「파시즘의 대중심리」, 도서출판 그린비, 2006년, 162쪽.

39) <황진미의 영화비평: 실현되지 못한 시대정신>, 《씨네21》, 2015년 9월 1일.

(3) 여성 노동자, 그리고 세대를 넘는 여성의 연대

여성 1 주인공 영화 가운데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있는 현실과 변화를 보여주는 캐릭터 유형은 ‘여성 노동자’가 등장하는 영화들이다. 대상 영화의 많은 수가 여성이 주부 외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단순한 설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여성 주인공이 가진 직업을 통해 사회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담아내거나 핵심사건을 가족관계가 아닌 여성 캐릭터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풀어내려는 영화들이 있었다. <카트>(2014)는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인 선희(염정화)와 헤미(문정희) 등을 주인공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한국의 중년 여성의 삶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들이 여성 노동자로 살아가며 연대하는 과정을 담는다. <굿바이 싱글>(2016)의 톱스타 주연(김혜수)의 임신 스캔들 (scandal)을 소재로 하며 그 가운데 청소년 미혼모 단지(김현수)를 등장시키고 있다. 위장된 미혼모인 1 주인공과 실제 청소년 미혼모인 조연 캐릭터가 함께 등장하며,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 과정의 현실성을 코미디로 풀어내며 비혼 여성의 임신을 다루면서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용인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것은 실제 한국사회가 처한 현실보다도 앞서 정치적 올바름이 선행된 형태이며, 그 과정에서 비혼 성인여성과 미혼모인 미성년 여성이 세대를 넘어 연대하고 대안가족을 이루는 모습까지 담고 있다.⁴⁰⁾ <오피스>(2015)의 이미례(고아성)은 모성이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 또는 성폭력 피해자로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닌 회사, 즉 사회와의 관계⁴¹⁾에서 범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기존의 여성 캐릭터 해석과는 다른 새로운 면을 보여준다.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강화되고 남성이나 가부장제와는 별개로 독립적이고 주체성 있는 존재로 인식되는 과정에서 영

주

40) <황진미의 영화비평: 2016년 상반기 한국영화에서 그려진 여성 서사를 말하다>, 《씨네21》, 2016년 8월 9일.

41) 세컨드 필름 매거진 편집부, 「세컨드 필름 매거진 2호 : 여성의 힘」, 누나온더비치, 2017. ‘(오피스는) 복수 모티프이자 범죄 행위 촉매가 가족이 아니라 회사의 팀원들, 즉 사회로 이어진 것이 신선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화가 담아내는 여성 캐릭터 역시 앞의 로맨스의 주인공, 모성 또는 가족 관계의 구성원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의 역할과 고민이 캐릭터 형성에서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아직은 매우 적은 수의 영화이지만 한국 대중영화가 여성에 대한 관념의 사회적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변화이다. 그것은 때로는 <굿바이 싱글>(2016)에서 비혼 여성의 임신을 영화 속 세상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같이 영화 안에서 올바른 성 정치적 입장이 선회되는 방식으로 나아가기도 할 것이며 어떤 때는 지금 이곳의 여성 노동자들이 그들이 처한 불평등한 현실과 노동자성을 자각하고 연대하는 <카트>처럼 현실을 반영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4) 청소년 관람 대중영화에서의 여성 주인공과 성 고정관념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흥행영화 50위까지의 청소년 관람 가능 영화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여성 1 주인공과 장르라는 큰 틀에서 현재 한국영화에서 여성 캐릭터와 서사가 처한 현실을 들여다보고자 했다.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본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영화 안에서 여성이 드러나는 방식은 다양하다.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비중있는 조연이나 혹은 남성 주인공을 둘러싸고 다루어지는 여성에 관한 담론을 통해서도 여성에 관한 수많은 서사가 공존하며 전달된다. 그러나 대중영화에서 주인공이 영화가 전달하려는 서사의 핵심에 존재한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조사대상 영화에서 여성 1 주인공 영화의 성비가 18%로 남성 1 주인공과 비교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여성에 대한 서사의 성 정치적 올바름을 따지기에 앞서 양적으로 이미 심한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둘째, 장르가 가진 강력한 표면장력은 관객의 선호를 반영하며, 진화하는 것인 동시에 기존의 영화산업과 사회가 가진 현재의 고정관념을 반영한다. 조사대상 영화에서 남성과 여성 1 주인공 모두 드라마 장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2위부터는 장르가 확연히 갈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성 1 주인공의 경우는 드라마와 로맨스/멜로가 각 10편으로 31%를 차지했으나 남성 1 주인공의 경우는 드라마에 이어 액션 24%, 스릴러/미스터리/범죄 가 21%로 나타났다. 여성 1 주인공의 경우는 액션이 단 2편으로 코미디 장르와 함께 가장 적게 나타났다. 남성 1 주인공 영화에서는 로맨스/멜로의 비중이 6%로 장르 유형 중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여성 1 주인공 영화에서 로맨스/멜로 장르 영화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확연히 대비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여성 주인공들이 대중영화의 중심에서 여성이 중심이 되는 서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드라마와 로맨스/멜로에 집중된 상황을 벗어나 액션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 영화에 맞는 캐릭터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산업이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담론과 정책적 유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여성주의 담론의 전파는 전 세계 영화산업에 강력한 파장을 가진 마블(Marvel)이 초우주적 여성영웅 <캡틴 마블>(Captain Marvel, 2018)을 만들게 했다. 한국 역시 강력하고 독립적이며 주체적인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는 액션장르 영화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에 어울리는 여성 배우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산업의 측면에서 청소년 대상 관람영화의 여성 1 주인공 영화의 장르를 분석하고 캐릭터 유형을 구분하여 그 안에 여성에 대한 성 고정관념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했다. 그 결과 여성 1 주인공 영화가 로맨스 장르이거나 여성 주인공이 로맨스/멜로가 아닌 다른 장르에서 별도의 목표가 존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로맨스 관계 안에 놓여 있는 경우가 1/3이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로맨스 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 여성 1 주인공의 경우에는 모성으로 갈등하거나 가족관계, 특히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양가적 감정이 갈등의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남성 1 주인공 영화에서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양가적 감정을 갖거나 부성으로 인해 갈등하는 주인공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과 비교되며 이는 많은 영화에서 여성 주인공이 가부장제의 성 고정관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형태로 등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형의 마지막으로 여성 노동자, 그리고 여성의 연대를

지목한 것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합리성, 여성의 몸과 성주체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여성의 연대를 통해 극복해나가자고 이야기하는 영화와 여성 주인공의 등장이 이후 한국영화에서 성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다양한 장르, 다양한 캐릭터의 여성 서사를 지지하는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나오며

영화
연구
80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미국의 스테이지 스미스와 쿡(2008)의 경우 대학과 연구소의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여성과 소수자에 관한 대규모 연구조사를 매년 발표하는 반면 한국은 2017년에 영진위가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기초 통계를 처음 발표한 상황에 머물고 있다. 영진위의 성인지 통계는 2018년 확장된 형태로 발표되었으며 이후 성인지적 관점의 통계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아직 여성영화와 영화인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부족한 한국 영화산업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관람가능한 영화에서 나타난 여성 1 주인공 영화를 장르별로 구분하고 남성 1 주인공 영화와 비교하였다. 청소년 관람 가능한 영화에서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는 작품은 18%로 남성 주인공 서사와 비교해 양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캐릭터의 질적 측면에서도 여성 주인공은 로맨스를 플롯의 중심 또는 중요한 관계에 놓거나 모성/가족관계 안에서 갈등하는 인물로 다루어진 영화가 많다는 점은 한국영화 안에 나타난 성 고정관념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 그 수가 적지만 여성의 노동자성을 중심으로 캐릭터를 표현하는 영화가 등장하고, 세대를 뛰어넘는 여성의 연대를 제시한다는 점은 여성주의적 변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노동을 통해 연대하는 사회적 존재로 그려지는 여성, 세대와 가부장제의 세계관을 넘어 연대하는 여성 캐릭터의 등장은 때로는 현실을 담아내고 때로는 현실보다 앞서며 여성주의의 세계를 넓혀나간다. 한국사회가 급속하게 변해가는 가운데 여성과 남성의 성 고정관념을 둘러싼 논쟁은 사건과 담론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틈도 없이 우리의 삶을 해체하고 변화시키고 있다. 엔터테인먼트의 최전선이라고 할 할리우드는 누구보다 빠르게 그 변화를 받아들여 프랜차이즈 시리즈 액션 영웅인 여성 주인공의 성장담 <캡틴마블>을 선보여 전 세계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다. 여성 서사의 확장과 성 고정관념의 재정립에 대한 요구는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당위의 영역을 넘어 시대의 변화를 담아 새로운 영화산업의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미래를 위한 비전(vision)인 것이다.

대중영화의 장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한다. 남성 중심의 서사를 통해 진화해온 대중영화 장르물의 영역에서도 여성 캐릭터와 서사의 중요성에 대한 요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영화산업 역시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영진위는 기존의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기초적인 통계구축의 차원을 벗어나 한국영화의 주·조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성 캐릭터의 성 고정관념에 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조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한 청소년 관람 가능 대중영화의 여성 1 주인공 영화의 장르와 캐릭터 유형 및 성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산업 통계 속에서 한국영화의 여성 캐릭터를 둘러싼 성 고정관념이라는 모호하고 거대하며 파편화된 정보의 담장 너머를 들여다보기 위한 시도이다. 향후 한국 영화산업이 부딪힐 변화하는 세계관, 특히 여성주의와 소수자를 둘러싼 담론과 관련하여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영화산업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앞서 말한 포괄적인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고 이는 향후 한국 영화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고 혁신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둘째, 스웨덴에서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백텔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한국에 맞는 백텔 테스트와 같은 한국형 성인지 테스트가 연구를 통해 새롭게 제안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산업 내부의 논의를 거쳐 공유되고 기획개발 및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활용된다면 다양한 여성 캐릭터와 여성 서사의 개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 대중영화가 성 고정관념을 벗어나 다양한 장르물로 진격해가는 담대한 도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여성주의적 담론이 제시되고 그에 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여정은 성평등 뿐만 아니라 인종, 성 정체성, 장애의 유무와 같은 모든 불평등과 편견을 극복하고 폭넓은 세계관을 담아내며 연령과 세대를 뛰어넘어 소통하는 자유로운 영화창작과 향유를 위한 출발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 배은경, 「연쇄살인사건과 영화: 여성의 불안을 즐기는 사회」,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88집, 2010.
- 조진희, 「조선족 여성에 대한 한국 상업영화의 민속지적 상상」, 현대영화연구 vol13.no.3, 2017.
- 박인영, 「청소년의 성적 재현에 관한 연구」, 『영화연구』(56), 2013.
- 박인영, 「2000년대 한국 스릴러 영화의 모성 재현 연구」, 『영화연구』 제55호, 2013.
- 현승훈, 「영상물 관람등급 분류에 따른 수용자 인식유형에 관한 연구-청소년 관람규제 등 급의 영상물을 중심으로」, 『씨네포럼』(22), 2015년

<문헌>

- 영화진흥위원회, 「소수자 영화정책 연구 | 성평등 영화정책을 중심으로」, 2018년 2월
- 류정아 외, 「성평등 문화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7,
- 영화진흥위원회, 「2017년 한국영화산업 결산보고서」, 영화진흥위원회, 2018년 1월.
- 심미선 외, 「미디어에 의한 성차별 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 2017년.
- 반두라 A.(Bandura, A), 김의철 외 역, 『자기 효능감과 인간행동: 이론 기와 발달 분석』, 교육과학사, 2003.
-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 「파시즘의 대중심리」, 162쪽, 도서출판 그린비, 2006.
- 세컨드 필름 매거진 편집부, 「세컨드 필름 매거진 2호 : 여성의 힘」, 누나온더비치, 2017.
- Dr.Stacy L Smith, Crystal Allene Cook, <Gender Stereotypes:An Analysis of popular films and TV>, Annenberg School for communication/The geena Davis Institute on Gender in Media, 2008. 12pp.

<신문기사>

- <“미투운동-#故신성일가자”..2018년영화계 사건사고 TOP5>, 《OSEN》, 2018-12-21
- <성평등문화정책포럼, ‘여성,문화·예술 정책을 말하다’>, 《씨네21》, 2018년 11월 9일.

- <청룡 후보작이 말하는 여성영화의 현실>, 《조이뉴스24》, 2018년 11월 24일.
 <지나 데이비스 여성 미디어 지킴이로 나서다>, 《여성신문》, 2011년 8월 26일.
 <한국영화 속 여성, 이렇게 변했다③-下>, 《시사위크》, 2018년 12월 31일
 <미생: 사라진 여자> 리뷰|절대 사라져선 안 되는 것>, 《맥스무비》, 2016년 11월 22일.
 <황진미의 영화비평: 실현되지 못한 시대정신>, 《씨네21》, 2015년 9월 1일.
 <황진미의 영화비평: 2016년 상반기 한국영화에서 그려진 여성 서사를 말하다>, 《씨네21》, 2016년 8월 9일.

<홈페이지>

영화
연구
80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http://solido.kr/about/history/>
 USC Annenberg 홈페이지. <https://annenberg.usc.edu/research/aii>,

Abstract

A Study on the Gender Stereotypes in Korean Popular Movies available for Adolescents

Kim Seonah

Dankoo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The reality of the Korean film industry is not satisfactory in a situation where the Hollywood movie's offensive with visual special effects and popularity is in a hurry. Korean films that compete with the US franchise series tend to select stimuli such as crime. Foreign movies with a franchise dominance over 68% have a dominance over the age of 12. Korean films have grown by inheriting male-centered narratives through genre films based on crime or historical facts.

However, now that the new appearance of feminism has raised the voice of audiences who want to incorporate them into production environments and narratives, Korean films are at a crucial point to detect and respond to change. This study examines the types of representation of female characters in the films of the last 5 years, which can be viewed on the basis of the rating.

It will examine the number of works by genre / grade of female main characters and examine the types of representation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gender stereotypes both overseas and domestic. Through this, it will be able to gauge to what extent the Korean youth are faced with the limitations of the women whom they meet through films during their growth. I hope the discussion will lead to the growth and change of female characters in the future.

Keywords :

feminism, Korean popular film, movie rating, female character, female lead character, female protagonist, gender stereotype

투고일(2019년 4월 19일), 심사일(1차: 2019년 5월 28일, 2차: 6월 9일),
게재확정일(2019년 6월 9일)